

라키비움 형식의 기관 소장 자료에 관한 분류체계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방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사례로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ystem and Online Service Methods for Collections in Larchiveum-Type Institutions: The Case of the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이혜윤(Hyeyun Lee)¹, 이해영(Hae-young Rieh)²

E-mail: okeydkey36@hanmail.net, hyrieh@mju.ac.kr



1 제1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
2 교신저자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교수

논문접수 2024.4.23
최초심사 2024.4.27
게재확정 2024.5.16

ORCID

Hyeyun Lee
https://orcid.org/0009-0007-5733-6612

Hae-young Rieh
https://orcid.org/0000-0002-6300-2543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라키비움'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포괄하여 통합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고안하고, 이를 온라인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례연구로는 임시정부 자료 소장기관인 국가기록원, 국회 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의 분류체계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온라인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위 세 개 기관과 함께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과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기관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기관 소장 자료에 대해 출처별 계층분류로 기본적인 체계를 구성하였고,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분류기준에 따른 다중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고안한 분류체계 개발안을 온라인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considering the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a "Larchiveum," the researchers attempted to develop a classification system that can comprehensively categorize various types of materials and propose a method of providing an online service. To this end, as a case study, the researchers examined the classification system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Assembly Archives, and Archives of Korean Histo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which are the current material collection institution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Regarding online services, apart from the three institutions above, the Imperial War Museum and the Hoover Institution at Stanford University were also explored. Through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cas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institutions, a basic hierarchical classification system by provenance for the materials held by the institution was established, and a multi-classification system was presented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by type, by era, and by subject." In addition, methods of applying the developed classification system to online services were proposed.

Keywords: 라키비움, 분류체계 개발, 온라인서비스 방안, 통합자료,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
Larchiveum,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Online Service Plan,
Integrated Data, material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본 논문은 이해윤의 석사학위논문 「라키비움 형식의 기관 소장 자료에 관한 분류체계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방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사례로」(2024)를 요약 수정한 것임.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세 문화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융합하여 복합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키비움(Larchiveum)은 본래의 고유기관들이 하고 있던 기능적 영역들을 한곳으로 집중하여 이용자들에게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다. 또한 콘텐츠의 확장과 기록관이 설립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대안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이미경, 2014; 최영실, 이해영, 2012). 나아가 기관별로 고유하게 수집하는 자원 자체는 다를 수 있겠으나, 기관 운영 과정에 있어 자원들을 수집, 보존, 관리 등을 해야 하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기능의 측면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소장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 한다는 점 역시 유사성이 있다. 따라서 소장하고 있는 각 자원과 다양한 매체들을 융합하여 한 기관에서 확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라키비움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조현양 외, 2015; 최영실, 이해영, 2012).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라키비움을 표방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들의 웹사이트 서비스를 살펴보면 통합정보검색이 가능하게 다양한 옵션과 상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전시 및 교육 등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이용자 인터페이스들이 통일성 있게 구축되어 있다는 특성이 있다(서채영, 이해영, 2024).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라키비움의 구축과 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으며, 라키비움의 의의인 기록, 도서, 박물관의 통합적 분류 정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키비움' 개념을 분류체계에 적용하여, 각 기관의 대표 자료인 '기록물, 도서, 유물'을 하나의 통합된 분류체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라키비움 형식의 기관 소장 자료에 관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현장 사례로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임시정부사 자료들은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회기록보존소 등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임시정부를 기반으로 설립된 주축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수집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지만, 2022년 3월 1일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 개관되어, 앞으로의 임시정부사 관련 자료들은 한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수집, 관리될 필요성이 있겠다. 또 혼재되는 주제 및 키워드들을 기관 특성에 맞게 제대로 분류·정리하고, 메타데이터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자료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시정부와 관련된 다채로운 형태의 자료들을 포괄하여 통합분류 할 수 있는 라키비움 형식의 기관 소장 자료에 관한 분류체계 개발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자료들을 다면적인 의미에서 바라보고 분류할 수 있는 다중분류체계 개념을 함께 접목시켜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자료의 다양한 특성에 초점을 맞춰, 서로 다른 형태의 물리적 자료들을 다중 분류체계의 세부 분류에 따라, 또 하나의 통합 분류체계 개발안에 매핑하여 분류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임시정부 자료의 라키비움 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세 가지 연구 범주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임시정부 기록물, 기록물 분류 및 분류체계기준안 개발, 라키비움 운영 및 구축 방안, 관련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 방안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임시정부 기록과 관련한 연구에서 공귀영, 리상용(2008)은 임시정부단체의 활동 및 기능에 대해 파악해 보고,

임시정부 기록물 특징에 적합하게 출처전자기술레코드를 구현하여 관련 기록물 검색도구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김학명(2016)은 임시정부가 기록을 어떠한 법령 및 제도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기록의 생산, 관리, 보존을 수행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광재(2018)는 임시정부 기록물들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소실되었는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 알아보았다. 또 관련 기록물들의 소장유무와 행방을 알아보고 전해지는 기록물들에 대해 파악하였다.

분류체계에 관련한 연구에서 이재영, 정연경(2020)은 폐교대학 기록물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박성우, 정대근(2017)과 오정희, 정연경(2018)은 역사 기록물에 주목하여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박성우, 정대근(2017)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록물의 분류원칙을 세우고, 관련 단체들에 적용 가능한 통합적 기록물 통합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오정희, 정연경(2018)은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운동 관련 컬렉션 기록물에 중점을 두고 출처, 주제, 자료유형별로 분류체계를 개발·제안하였으며, 독립운동 기록물로부터 주제어들을 추출하여 의미 있는 컬렉션을 도출해 내었다. 김유선, 이명규(2018)는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기록물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라키비움에 관한 연구에서 최영실, 이해영(2012)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요건들을 분석하여 라키비움 기능을 계획, 설계하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오정훈, 이응봉(2014)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문도서관에 라키비움 체계를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그 방안과 구축 절차에 관해 제시하였다. 배성중, 배삼열, 김용(2014)은 대학도서관, 대학기록관, 대학박물관 기관의 현황들을 살펴보고 소규모대학교에 라키비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서비스, 공간운영, 예산확보, 조직구성 등 방안 등을 고안해 제시하였다. 유소연, 김지현(2022)은 라키비움의 관계자인 사서, 기록연구사, 학예연구사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라키비움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도 및 의견을 파악해 보고, 이를 근거로 국내 라키비움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물 검색 및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에서 성효주, 이해영(2017)은 대통령 기록물을 중심으로 대통령기록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패킷 요소들을 도출하고 제안하였다. 이는 다중분류체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박옥남(2019)은 국내외 8개의 문화유산 기관의 서비스들의 사례를 알아보고, 관련 전문가 면담을 진행하여 문화유산 콘텐츠의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김천호(2022)는 4·3평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제주4·3사건아카이브에 대해 파악하고, 국가기록원, 환경 아카이브 풀숲, 민주화운동기념관 사료관, TNA, 홀로코스트기념관 등 국내외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제주 4·3아카이브에 관한 기록정보 온라인콘텐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의 선행연구를 통해 임시정부기록물들의 실제 및 기능별 분류, 이론적 측면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기록물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분류체계 개발안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었다. 또 라키비움에 관한 이론적인 측면과 자료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관 기능이 융합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록물에 관한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방안 등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앞으로 임시정부기념관의 융합 대상 자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분류하고 온라인 서비스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참고할 수 있었다.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임시정부기념관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통합하여 분류할 수 있는 라키비움 형식을 분류체계 개발안에 접목하여 제안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고안한 분류체계를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구현가능하게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관련 문헌들을 살펴보고 대상기관의 소장 자료 현황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국내외 기관들의 임시정부 관련 분류체계 및 온라인 서비스 사례에 관해서도 분석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상 기관의 분류체계 개발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살펴보고자 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임시정부기록물 관련 연구, 분류체계기준안 개발에 관한 연구, 라키비움 개념 및 운영방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 다중분류와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기록물 및 온라인 서비스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 기록물에 대한 배경에 관한 내용과 함께, 임시정부기념관에 적합한 통합분류체계 개발에 있어 필요한 측면들을 참고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대상 기관인 임시정부기념관에 관한 기관 및 자료 현황을 살펴보고, 소장 자료들에 다중분류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라키비움이 의미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분류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하였다. 자료의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겠으나, 서로 다른 물리적 형태의 자료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셋째, 임시정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유관기관 중 통합형 기록물 수집기관의 분류체계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분류체계 구조 및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벤치마킹할 부분들을 차용하고자 하였다.

넷째, 국내외 기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분석 및 반영하여 임시정부기념관의 소장 자료 분류에 적용 가능한 통합분류체계 개발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 ‘출처별 분류’를 기본 틀로 하여 계층구조를 분류하고자 하였고, 나아가 다중분류의 개념을 함께 적용하여 ‘형태별 분류’, ‘시대별 분류’, ‘주제별 분류’로도 자료의 구분이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고안한 분류체계 개발안을 온라인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제안하기 위해, 임시정부 관련 기록물을 소장한 여러 기관의 사례에서 살펴본 시사점을 근거로 제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련 사례로 국내기관은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분류체계 서비스를 분석하였으며, 국외기관으로는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컬렉션 서비스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한 내용들에 기반하여 임시정부기념관이 수집 및 관리하고 있는 유물, 도서, 기록물의 전체자료에 다중분류 개념을 접목하여 하나의 통합된 자료분류체계 개발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온라인 서비스의 분류체계 및 컬렉션 부분에 적용할 방안을 함께 제안하였다.

2. 다중(패시)분류 및 분류체계 개발

다중분류란 하나의 분류체계로 단정지어 대상자료들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분류하고자 하는 자료의 특징 및 상황에 근거하여 다양한 면을 반영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주제어들을 중복설정하여 여러 의미로 분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다중분류체계를 통해 이용자들은 다면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자료에 좀 더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 분류체계는 패시 분류 기법으로 체계화될 수 있다. 패시분류는 랭가나단의 콜론 분류에서 파생된 것으로서(이해영 외, 2013; 한국도서관협회, 발행년불명), 다중분류, 즉 패시분류를 적용하여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자료에 사용되는 주제어 및 용어들을 분석하여 기본 패시와 파생될 수 있는 하위 패시으로

구분지어 나갈 수 있다.

패킷 추출은 자료에 따른 업무 활동, 물리적 형태, 기록물 특성 등에 초점을 맞춰서도 추출해 볼 수 있다. 또 기관 홈페이지의 검색 옵션 및 이용자 언어 등의 부분을 참고하여 주제어들을 도출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도출된 패킷들 간의 조합으로 대상 자료들의 복합적인 검색분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중분류체계는 자료분류를 위해 고유 명사 등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패킷들을 설정함으로써, 자료 한 건에 여러 주제를 중첩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박도영, 오경목, 2020; 성효주, 이해영, 2017; 이해영 외, 2013).

기관에서 적용할 자료분류체계를 조직·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의 일반적인 정리 원칙들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로는 ‘출처의 원칙(principle of provenance)’, ‘원질서 존중 원칙(principle of original order)’, ‘계층적 관리’의 원칙이 있다. 이들 원칙에 근거하여 기관 대상자료에 관한 분류체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 특성과 종류를 파악하는 것과 어떠한 목적으로 앞으로 분류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료의 특징 및 흐름에 따라 어떠한 맥락 및 가치로 기록 분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관한 업무, 업무활동 분석단계도 필요하다. 또 대상 기록물을 출처, 주제, 시기, 형태 등 어떠한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구성할지, 상황에 따라 여러 기준치를 적용하여 통합분류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결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자료 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이용 프로세스도 체계개발 시 고려되고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박성우, 정대근, 2017; 오정희, 정연경, 2018).

패킷분류 기법을 이와 같은 분류체계 개발에 실질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다양한 패킷들을 복합 연결, 적용함으로써 분류하고자 하는 대상자료에 대한 주제들을 다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보검색에 대한 정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 더불어 기록 및 문헌에 대한 다양한 맥락정보와 접근점을 반영하여 자료들을 좀 더 적합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다(윤규빈, 김다운, 장효정, 2023).

이러한 다중분류 개념을 활용하여 분류체계 개발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는 선행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해영 외(2013)는 대통령기록물 분류를 위해 다수의 주제어 및 대통령별 시기와 사건, 지역 구분 등을 구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다중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성효주, 이해영(2017)은 대통령기록물에 초점을 맞추어 대통령 업무, 기록물 특징, 대통령 주변인물, 행사나 협정, 물리적 형태, 기록물의 공개여부나 보존 기간 등에 따른 다양한 기록의 특성들을 분석하여 관련 패킷들을 추출한 패킷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성우, 정대근(2017)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분류하기 위해 기록물 실증분석을 통한 통합분류체계를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출처, 자료유형, 시기, 매체형태, 주제별 분류체계 기준을 적용시킨 확장된 체계를 만들고자 하였다. 나아가 기록물의 특성상 참고 될 수 있는 시대적 개념을 적용시켜 컬렉션 중심의 통합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오정희, 정연경(2018)은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의 독립운동 컬렉션 기록 정보를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고안하고자 하였으며, 출처, 주제, 자료유형별에 따른 다중분류체계 기준을 활용하여 자료들을 구분하고자 하였다. 관련 기관의 사례분석에 기반하여,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운동컬렉션의 독립운동 기록을 먼저 생산기관에 따른 출처별로 분류하고, 주제별 분류를 위해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였으며, 매체 유형별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이들을 코드, 기호화하였다. 박도영, 오경목(2020)은 1950~1979년 기간 동안의 유네스코 소장 기록물 중 한국과 연관된 기록물들을 분류하기 위해 패킷분류체계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기본 패킷과 하위 패킷으로 구분지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본 패킷으로는 주제 분야, 단체, 인물, 재료·설비·자원, 행동, 활동, 행사, 지명, 생산 연도, 자료 유형으로 총 10개의 구성으로 진행하였으며,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38개 하위 패킷으로 분류하여 체계를 구성해 놓았다. 그리고 각 패킷들의 조합으로 유네스코 소장 한국 기록물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분류,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패킷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이용자들이 다각적으로 주제 접근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패킷 추출을 통한 다중분류체계는 기록물 및 박물과 도서 등 다양한 통합적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라키비움을 지향하는 기관에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현황

3.1 기념관 소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임시정부기념관) 2022년 3월 1일 개관한 국가보훈부 소속 기관으로써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과 관련한 활동, 인물, 사건 등의 다채로운 자료들을 수집, 전시, 연구, 보존, 교육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나아가 임시정부기념관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겠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가치와 의미를 알리는 곳이다. 그리고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들을 기소장하고 있던 유관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임시정부와 관련된 자료 및 연구를 주체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며, 여러 곳에 분산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모으며 자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행년불명).

임시정부기념관의 소장 자료 및 전시내용, 시설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소장 자료의 경우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과 관련한 유물, 도서, 기록물 등이 수집되어 있다. 전시의 경우 임시정부사를 테마별로 구성한 ‘상설전시’와 특별주제를 다루고 있는 ‘특별기획전시’, 유관기관끼리 관련 자료들을 교류하여 전시하는 ‘교류전시’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다. ‘상설전시’에서는 임시정부사에 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특별기획전시’에서는 임시정부사 활동, 인물, 기록 등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들은 이미 여러 유관기관들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대역하여 정보들을 함께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시설은 기획전시실, 상설전시 1, 2, 3관, 라키비움, 수장고, 유물관리실, 보존과학실, 전문도서실, 사무실, 의정원홀, 상징광장, 의무실, 수유실, 카페/기념품점, 옥상 공간 등이 있다(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행년불명).

3.2 임시정부 자료현황과 특징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내외에 분산되어있는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과 관련한 근현대사 자료들을 적극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유물, 도서, 기록물, 행정박물 등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4월 현재 소장 자료는, 유물 총 7,336점, 소장도서 8,275권, 기증기록물 약 1,800여점, 박물관 활동기록 157건, 관련 실물 아카이브 약 120점, 행정박물 14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는, 유물이 총 500점이고, 도서가 7,634권이다. 기증기록물의 경우 인물A에 대한 컬렉션이 729점이며(추후 공개 예정), 박물관 활동기록이 157건이다(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3). 자료수집은 유물의 경우 매도, 기증, 기탁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기록물은 기증 및 현지 조사, 기념관 활동으로 나온 결과물들을 통해 수집된다. 도서들은 기증 또는 구입, 기관 자체에서 발행된 자료들로 이뤄진다(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3).

임시정부기념관 자료는 수집된 자료의 특성상 형태가 지류 유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임시정부사, 독립운동 주제 범위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소 내용 및 주제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시대에 따라서는 대한제국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역별 이동시기, 광복 이후 등으로 역사적 시기를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다. 기증 기록물은, 특정 인물들에게 받은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형태에 따라 일반문서류, 전적류, 사진필름류, 녹음·동

영상류 등으로 구분된다. 행정박물의 경우, 기념관 개관 시 사용되었던 관인류, 상징류 등의 기록물들로 구성된다. 임시정부기념관의 관련 수집 자료들의 경우 유물, 기록물, 도서, 행정박물로 구분지어 볼 수 있고,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면, 주제, 유형, 시대적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분류체계를 적용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게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해당 분류체계 개발안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합하겠다.

4. 통합형 기록물 수집기관의 분류체계 및 온라인 서비스

4.1 임시정부 관련 기록물 소장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

임시정부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관기관인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4.1.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30년 이상의 보존 가치를 지닌 중요 공공기록물과 국가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민간, 해외 소재의 한국과 연관된 기록물들을 수집 및 관리하고 있다. 기록물은 기록물군, 기록물 하위군, 기록물 계열, 기록물 철, 기록물 건으로 계층분류 하고 있다. 기록물 생산기관인 출처별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국공립대, 기타 등으로 분류되며 기술계층별로 확인할 수 있다. 기록물 유형별로는 토지기록물, 관보, 국무회의록, 정부간행물,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 기록물로 구분된다. 기록물 형태에 따라서는 일반문서류, 도면류, 카드류, 시청각류, 간행물류, 행정박물, 조선왕조실록 등으로 나뉜다.

‘임시정부’ 관련 주제로 자료를 검색하면 계층별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참고하여 기록물 계층별 분류의 범주와 함께 기록물 계열 및 철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해 나갈 수 있을지 참고해 볼 수 있겠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국가기록원 임시정부 주제어 관련 기록물 계층 구분

계층	분류
기록물군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총무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공보처, 대검찰청, 유엔 기록보존소 등 생산기관
기록물 하위군	각 지방청, 소속기관 등
기록물 계열	한국사 연구·사료 편찬, 정부간행물, 행정지원, 보상정책, 보존선양, 복지증진, 제대군인, 국무회의기록, 사건조사관련자료, 국정홍보, 형사 등
기록물 철	임시정부 선열 5위 유해 봉환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법령집, 대한민국임시정부 승인 관련 문서, 미군정, 기타 단체 및 조직 발행, 상해임시정부청사 철거자재 통관 등 재촉구 등
기록물 건	임시정부사 자료집(대한민국임시정부의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제안), 임시정부 수립기념일 행사 전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관련 의견 통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외교활동, 임시정부요인 안장 현황 등

임시정부 주제로 검색되는 기록물의 경우 분류기준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출처, 유형, 형태별로 구분 지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기록물에 관한 세부기준들에 대한 항목들을 유의미하게 참고할 수

있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국가기록원 임시정부 주제어 관련 기록물 세부 분류 기준

분류 기준	내 용
출처별	국가보훈처, 국사편찬위원회, 기획재정부, 총무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공보처, 대검찰청, 유엔 기록보존소 등
유형별	토지기록물, 관보, 국무회의록, 정부간행물, 독립운동 판결문, 일제강점기 피해자명부, 일제강점기 건축도면, 일제강점기 기록물
형태별	일반문서류, 시청각류(사진필름, 녹음동영상), 간행물류 등

4.1.2.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 의정활동 및 국회와 관련하여 생산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들을 종합적으로 이관, 수집·관리하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임시정부 기록물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조직체로 활동한 임시의정원 의회기록물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는 임시의정원 아카이브로 불리는데,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분류서비스에 중점을 두어 관련 계층분류를 살펴보았다. 국회기록보존소(2022)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임시의정원의 임시정부 관련 기록 분류체계는 기록물군, 기록물 하위군, 기록물 계열, 기록물 철, 기록물 건 순으로 계층분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기록물 계층 구분(국회기록보존소, 2022)

계 층	분 류
기록물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문서
기록물 하위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물 계열	비서국 의사과, 서무과,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무위원회, 미분류 등 총 17개
기록물 철	속기록, 의사록, 회의록, 비밀회의록, 서신, 의안, 서무사무, 회계 등 총 33개 문서
기록물 건	각 문서 건

또한 임시의정원 자료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 메인페이지에서 임시정부 관련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했을 시에는, 자료의 수집 출처에 따라 국내 수집 및 국외 수집자료로 크게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정부 관련 주제어로 검색한 기록물 분류기준을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정부 주제어 관련 기록물 세부 분류 기준

분류기준	내 용	
출처별	국내 수집	국회도서관,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그 외 주요 기관
	국외 수집	대만(중국국민당문화전파위원회당서관), 미국(하와이 주립 아카이브, 의회도서관, 기타기관), 영국(TNA), 일본(방위성 방위연구소, 외무성 외교사료관, 국립 국회도서관, 국문학연구소자료관, 기타기관)
형태별	문서류, 간행물류, 행정박물류, 기타	

4.1.3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은 한국역사와 관련한 국내 및 국외 자료들을 다양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계층화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는 사료군, 사료 계열, 사료 철, 사료 건으로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다. 분류기준에 따라서는 자료의 수집 출처별로 국내자료의 경우 국내 지역사 자료, 국내 주요 기관 및 가문의 고서, 고문서류, 일제 시기 중추원 자료, 일제 시기 조선사편수회 자료로 구분된다. 국외 자료의 경우, 미국·캐나다 자료, 중국·대만 자료, 일본 자료, 유럽·러시아 자료, 기타로 구성된다. 또 자료형태별로 고문서, 근현대문서, 고서, 단행본, 연속간행물, 구술자료, 지도도면, 녹음영상자료, 박물자료, 사진시각자료로 분류되어 있다. 주제별로는 구술자료, 민주운동화자료로 구분된다. ‘임시정부’ 관련 주제로 자료를 검색하였을 시 기록물 계층은 계층단위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임시정부 주제어 관련 기록물 계층 구분

계층	분류
사료군	서울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기증자료,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대한 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 관련 자료, 重慶市檔案館 한국관련 자료, 재북 독립운동가 홍재하 문서, 충북지역 개화기 개교 학교 관련 지역사 수집자료
사료 계열	구익균옹의 중국 임시정부(1929~45), 해방 전후사(1945~61)의 생애, 서울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개인01 소장 자료 수집,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 재북 독립운동가 홍재하 문서 개인01 소장 자료수집, 국사편찬위원회 간행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편찬을 위한 사진자료, Photographs of Wartime Personalities, 1942 - 1945[208-WP], Washington Registry Intelligence Field Files, 1942 - 1947 [Entry UD 108] 등
사료 철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 1-3, 대한민국임시정부재 중국, 재무부 포고 제1호, [大韓民國臨時政府 선언문역문, 憲章, 憲法, 約憲 등], 韓臨時 政府趙素昂等歡宴蘇武 官列贊諾夫 외 106종 등
사료 건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 〇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임시정부 국무위원 일동(1935년), 신익희와 임시정부 국내선발대 등

임시정부 주제어로 검색했을 때, 분류기준에 따라서 ‘출처별’로는 크게 지역별 수집자료에 따라 국내 수집 자료와 국외 수집 자료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별, 형태별 기준으로도 자료들을 분류하여 볼 수 있게 분류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표 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임시정부 주제어 관련 기록물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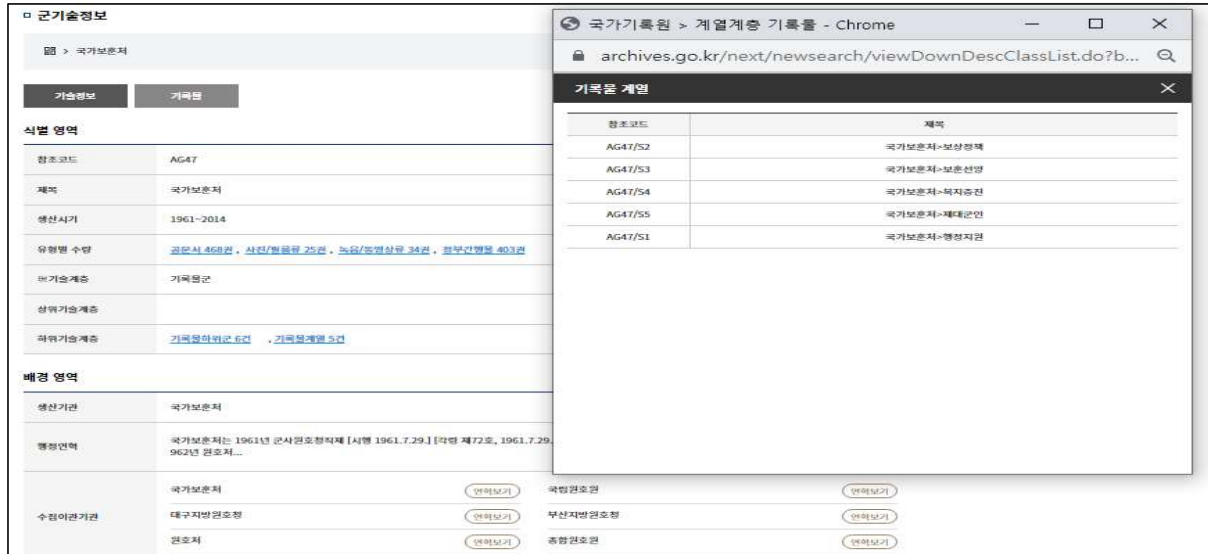
분류 기준		내용
출처별	국내 수집 자료	서울, 충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주요기관, 전국
	국외 수집 자료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독일, 러시아, 영국, 인도, 캐나다, 프랑스
유형별		구술자료, 민주화운동자료
형태별		구술자료, 단행본, 근현대문서, 녹음영상자료, 고문서, 지도도면, 박물자료, 연속간행물, 고서, 사진 시각자료

4.2 임시정부 관련 기록물 소장 기관의 국내외 온라인 분류체계 서비스

임시정부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의 온라인 분류체계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내기관으로 국가기록원, 국회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사례를 분석하고, 해외기관으로는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의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살펴보았다.

4.2.1.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영구보존이 필요한 다양한 생산기관의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구분하여 온라인으로 분류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기록물은 기록물군, 기록물 하위군, 기록물 계열, 철, 건의 계층구조에 따라 분류·정리 서비스되어 있다. 임시정부 관련 자료를 검색하면 기록물 건에 대한 정보들이 보이며 관련한 기록을 검색하면 정리되어있는 기록에 대한 계층정보 단위들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기록의 각 계층별로 생산 맥락 및 분류방식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1>은 기록물에 검색 시 표출되는 기록물 군에 관한 기술정보과 하위 기술계층 정보들이 표출되는 정보서비스 화면으로, 이용편의성에 도움이 되며 계층정보들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그림 1> 국가기록원 군 기술정보 및 계열계층 정보에 관한 서비스화면

<그림 2>는 건 기록물을 검색했을 시 제시되는 정보서비스 화면이며, 건 기록물에 대한 내용 정보와 함께 관련 철 제목, 기술 분류 계층사항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정보이해에 도움이 되며 시각적으로도 가시성이 있게 구현되어 있다.



<그림 2> 국가기록원 건 기록물에 대한 전체 서비스화면 및 계층구조

또한 임시정부와 관련한 국가기록원의 기록물 컬렉션 중에는 ‘독립운동관련판결문’이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건 기록정보에 대한 원문정보 및 기록정보들을 묶어 콘텐츠화 한 것이다. 이는 <그림 3>과 같다. 해당 컬렉션에서는 독립운동자 별 검색, 지역별 검색, 죄명 검색 등으로 다양한 검색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그림 3> 디지털 컬렉션 중 독립운동관련판결문 콘텐츠 서비스화면

4.2.2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는 의정활동 관련 국회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임시정부 기록물과 관련해서는 임시의정원 아카이브를 별도로 구축하여 자료 서비스화하고 있다. 관련 기록물 분류체계 서비스를 살펴보면 계층별로 기록물 철-하위 기록물건으로 구분지어 상세정보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물 철 관련 정보로는 해당 철에 속하는 기록물건들의 목록 및 정보사항들이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기록물 유형별, 생산기관별, 생산연도별, 원문정보 서비스 유무를 통해 기록물을 분류하여 확인할 수 있게 기록물 철-건 목록과 함께 관련 분류정보들을 한 화면에서 서비스화 하고 있어 전체적인 계층정보 파악이 편리하다. <그림 4>는 국회기록보존소 검색화면에서 임시정부 관련 주제어로 검색하였을 때 보이는 서비스화면 중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검색한 주제어에 관련한 계층정보를 한 화면에 기록물 철, 기록물 건으로 서비스화하고 있어 이용편의성이 있다.

전체 (18)	기록물철 (5)						더 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물철 (5) 기록물건 (13) 	생산연도	원제목	생산기관	생산부서	유형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 	2015	(1916613)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사무처	외사국 외안과	일반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18) 일반문서 (18) 	2015	(1916613)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사무처	기획재정위원회	일반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기관 	2015	(1916613)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사무처	안전행정위원회	일반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18) 국회사무처 (17) 국회도서관 (1) 	2015	(1916613)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사무처	경무위원회	일반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연도 	199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건립에관한청원	국회사무처	경무위원회	일반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18) 2011~2020년 (11) 1991~2000년 (5) 1961~1970년 (1) 1951~1960년 (1) 	기록물건 (13)						더 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문서비스 	생산일자	원제목	생산기관	생산부서	유형구분	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13) 온라인 제공 (2) 온라인 미제공 (11) 	2015.08.3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위원회 회부	국회사무처	외사국 외안과	일반문서		
	2015.08.3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회부	국회사무처	외사국 외안과	일반문서		
	2015.08.2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사무처	외사국 외안과	일반문서		
	2015.09.0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회부	국회사무처	경무위원회	일반문서		
	2015.09.01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위원회 회	국회사무처	안전행정위원회	일반문서		

<그림 4> 국회기록보존소 계층분류 서비스화면

<그림 5>는 기록물 철을 클릭할 시 표출되는 기록물 철 상세정보 및 관련 하위기록물 건을 보여주는 서비스화면이다. 기록물 철 정보와 함께 해당 기록물 건 목록들을 함께 표출해주어 정보시각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페이지에서는 주제별 기록물 철-건들을 모아 컬렉션으로 묶어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주제는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태동, 임시의정원의 입법 활동, 임시의정원의 회의 운영, 임시의정원의 위원회 활동 등 총 12개의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물철 상세정보
목록

기록물철 제목	(1916613)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생산기관	국회사무처	생산부서	외사국 의안과
유형	일반문서	단위업무	법률안문서관리(0001~0500)
보존기관	영구	철 분류번호	20-9710100-NA200073-2015-003432(001)
생산연도	2015	종료연도	2016
기록물건수	000003		

• 하위 기록물건

내 기록물 보기 [열람 신청하기] 전체 3건, 현재페이지 1/1 정확도순 10개씩 보기 적용

<input type="checkbox"/>	건제목	생산부서	생산일자	유형	전자구분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위원회 회부	외사국 의안과	2015.08.31	일반문서	전자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회부	외사국 의안과	2015.08.31	일반문서	전자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사국 의안과	2015.08.28	일반문서	비전자

<그림 5> 국회기록보존소 기록물 철 및 하위기록물 건 상세정보 화면

이는 <그림 6>과 같이 제공되며 관련 주제 컬렉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주제별 컬렉션에 관한 간략 내용 설명과 함께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 건수가 함께 표기되어 있어 내용 파악이 용이하다. 주제별 컬렉션 중 하나의 컬렉션을 선택하면 관련된 기록물 건들의 이미지와 함께 생산일자 및 소장정보가 표출된다. 기록물 건 이미지와 함께 정보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며 이전 컬렉션, 다음 컬렉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함께 설정되어 있어 이용 편의성에도 좋다.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물
기록정보 콘텐츠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이용자마당
기관 소개
로그인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개관 > 임시의정원 타임라인 > **주제별 컬렉션** > 기록 전체보기

독립선언과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태동

기록물 : 8건

임시의정원의 입법활동

기록물 : 15건

임시의정원의 회의 운영

기록물 : 25건

임시의정원의 위원회 활동

기록물 : 15건

임시의정원에서 다른 주요 의안

기록물 : 24건

국경 견제기구로서의 임시의정원

기록물 : 18건

<그림 6>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주제별 컬렉션 서비스 화면

전체기록 목록을 서비스하고 있는 화면에서는 임시의정원 관련한 정보들을 하나의 아카이브, 컬렉션으로 묶고 아이템, 즉 기록물 건 단위로 분류하여 정보서비스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현된 서비스화면은 또 상세분류의 경우 수집기관별 국회도서관, 유관기관들로 구분되며, 자료유형별, 생산연도별, 기록물 원문제공 별로 분류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컬렉션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록물 건 전체 목록들이 제시되고 있어 정보파악이 용이하다. 이는 <그림 7>과 같이 서비스된다.

국회도서관	+	전체 5,241건, 현재페이지 1/525	정확도순	10개씩 보기	적용		
유관기관	+	제목	생산기관(생산자)	소장처(수집처)	생산일자	유형구분	원문
유형	+	일제102호기1166 민주청년친목회원 검거의 건	평안남도지사(平安南道知事)	일본 방위성(일본)	1920-11-05	문서류	
연도	+	일제33호기330 국외정보: 북경 및 상해 불령선인의 동향(2)	조선군 참모장 야스미즈 키이치(朝鮮軍參謀長 安満欸一)	일본 방위성(일본)	1921-11-11	문서류	
기록물 원문 제공	-	일제33호기317 텐진에서 불령선인의 행동	조선군 참모장 야스미즈 안만欸一	일본 방위성(일본)	1921-11-04	문서류	
원문제공 (4,954)		아2기밀합제2055호 7.7.8 김구 일파의 동향과 그 체포계획에 관한 건(1)	재상해송영사 무라이 구라마스(村井倉松)	일본 방위성(일본)	1932-01-01	문서류	
전체(원문 미제공 포함) (5,241)		일제33호기313 국외정보: 가칭 상해 임시정부 법무총장의 광동행	조선군 참모장 야스미즈 키이치(朝鮮軍參謀長 安満欸一)	일본 방위성(일본)	1921-11-02	문서류	
검색옵션 적용		일제102호기872 미국인 거대 자금을 통하여 김립지방의 수권경영 및 후집일 미영사관 설치 계획	조선군 참모부(朝鮮軍參謀部)	일본 방위성(일본)	1920-05-01	문서류	
		일제102호기802 국외정보: 1. 폭탄제조에 관한 건 2. 불령선인의 징병 및 무기수집의 건	함경북도지사(咸鏡北道知事)	일본 방위성(일본)	1920-04-01	문서류	

<그림 7>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전체 기록물 건에 대한 서비스화면

4.2.3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국사편찬위원회는 전자사료관이라는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국내외 수집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기관 특성상 역사적 자료들 위주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사료’로 명칭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출처별로 사료를 분류하여 크게 ‘국내’, ‘국외’, ‘주제별’ 사료로 구분 짓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주제별 분류’는 크게 구술자료, 민주화운동자료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일반사료에 관해 검색하면 기록물 분류체계는 크게 사료군-사료 계열-사료 철-사료 건으로 계층분류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각 계층단위에 따른 기록물을 살펴보면, 해당기록에 대한 계층구조 전체가 상단에 함께 도식화되어 서비스화 되고 있어 정보의 맥락을 단계별로 확인하는데 유용하다. 그리고 계층정보들과 출처별로 분류되어 있는 정보들이 함께 서비스되어 있어 이용편의성이 있다. 또 한 페이지에 사료 철, 건 등의 관련 계층자료들이 상단에 표기되고 함께 정보 표출되어 서비스되기 때문에 한눈에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그림 8>은 ‘임시정부’ 관련 주제어 자료검색 시 표출되는 분류서비스 화면이다.

정확도	제목	건수
1	사료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의 추진 사업에 대한 지도위원 송낙] DCR050_12_00C0277 / 1988.10.07 - 1988.10.07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 사업회	1
2	사료철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DSE034_01_00C0001 / 1937-1944 / 임시정부	1
3	사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63호 DSE034_01_00C0001_001 / 1937.10.25 - / 임시정부내사처	1
4	사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64호 DSE034_01_00C0001_002 / 1939.09.30 - / 임시정부내사처	1
5	사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65호 DSE034_01_00C0001_003 / 1940.02.01 - / 임시정부내사처	1
6	사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호외 DSE034_01_00C0001_004 / 1940.08.15 - / 임시정부내사처	1
7	사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호외 DSE034_01_00C0001_005 / 1940.10.09 - / 임시정부내사처	1
8	사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69호 DSE034_01_00C0001_006 / 1941.02.01 - / 임시정부내사처	1
9	사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70호 DSE034_01_00C0001_007 / 1941.06.04 - / 임시정부내사처	1
10	사료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71호 DSE034_01_00C0001_008 / 1941.10.07 - / 임시정부내사처	1

<그림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분류서비스 화면

계층정보 중 사료군에 대한 정보서비스 화면은 <그림 9>과 같다. 사료군에서 세부 분류되는 하위자료 전체 건수가 계층분류에 따라 함께 정보 표출되고 있으며 자료의 계층정보가 상단에 표시되어 쉽게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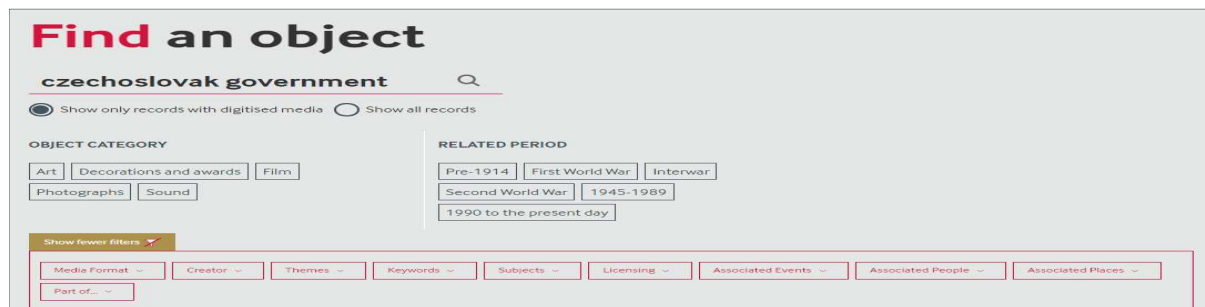


<그림 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군에 관한 정보서비스 화면

4.2.4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Imperial War Museums: IWM)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은 영국 잉글랜드에 위치한 총 5개로 구성된 국립박물관으로 제1차 세계대전 및 현재까지 이르는 각종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수집한 전쟁 경험들을 보존하고, 각종 분쟁의 요인,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연구하고 서비스, 콘텐츠화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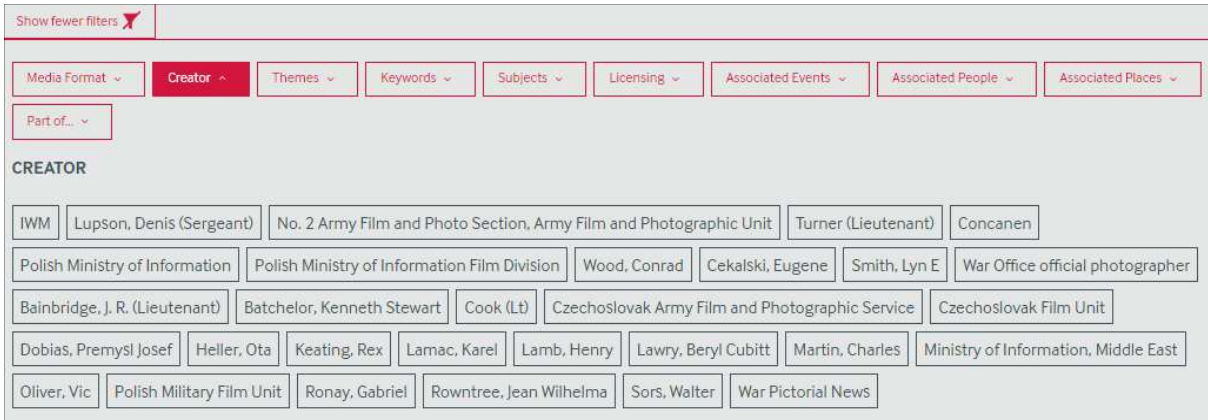
임시정부(망명정부) 주제어와 관련된 체코 자료들을 예시로 검색해 보면 온라인서비스 분류체계는 주로 컬렉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다중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체 분류체계의 경우 컬렉션-철-아이템(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정보검색에 대한 전체 계층 서비스화면은 <그림 10>과 같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IWM의 체코 임시정부(망명정부) 주제어 관련 정보검색 계층 서비스화면

몇 가지 예시로 살펴보면 먼저 생산자별 분류는 <그림 11>과 같이 상세분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테마에 따른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정보들을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한 또 다른 맥락정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다른 생산자, 키워드, 주제 등의 다른 세부기준들로도 필터링하면 다양한 기준들이 나와 탐색하고자 하는 정보들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화면에서는 관련 주제를 검색을 통해 디지털 미디어로 된 정보들만 체크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모든 레코드들을 볼 수 있게 항목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되고 있어 정보시각화가 잘 되어 있다. 추가 세부기준의 경우,

각 분류항목으로 세분화하여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11> IWM의 체코 임시정부(망명정부) 연관 사건에 관한 생산자별 분류 서비스화면

<그림 12>는 테마별 분류에 대한 세부분류를 나타내고 있다. 검색해보면 체코 임시정부(망명정부)와 관련하여 ‘폴란드 1939-1945’ 또는 ‘체코 군대 1919-1939’ 등의 테마들로 분류되어 있으며, 관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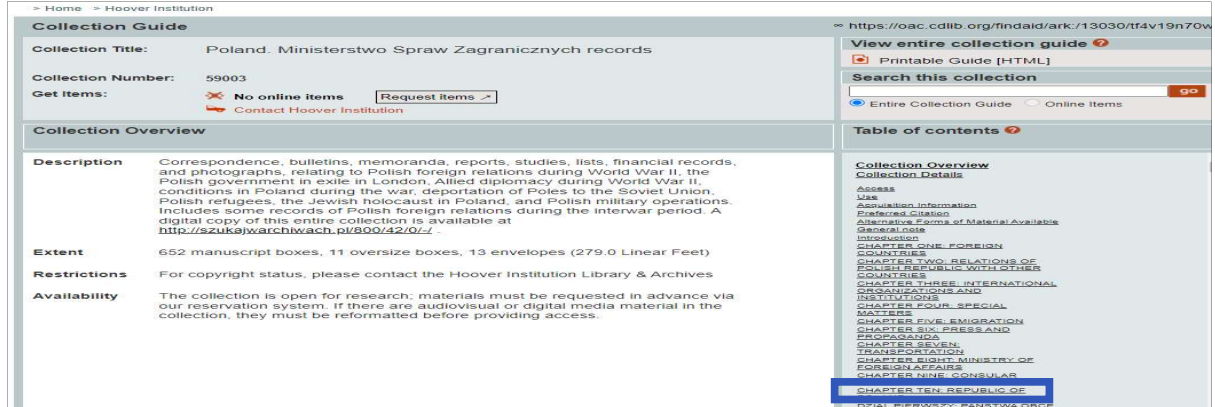


<그림 12> IWM 체코 임시정부(망명정부) 컬렉션 검색 서비스화면

4.2.5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의 도서관과 아카이브(Hoover Institution Library&Archives)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의 도서관과 아카이브는 전쟁, 혁명, 평화 주제와 관련된 100만 권이 넘는 도서와 6,000건 이상의 아카이브에 관한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보관소 역할을 하고 있다. 또 20세기 및 21세기와 관련한 정치, 사회, 혁명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해당 연구소 컬렉션의 경우 포스터, 사진, 텍스트, 사운드 녹음, 동영상, 예술 및 기념품, 희귀도서 등 다양한 통합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컬렉션은 후버연구소의 도서관 카탈로그, 기록보관소, 캘리포니아 오픈 아카이브(Online Archive of California: OAC)와 연결되어 관련 탐색 정보로 연결, 검색할 수 있게 서비스되고 있다. 후버연구소 컬렉션의 경우 컬렉션(시리즈)-아이템(건)으로 분류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의 폴란드 임시정부(망명정부)와 관련하여

검색하면 <그림 13>과 같이 일부 서비스화면이 표출됨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컬렉션 내용소개와 함께 특징화된 컬렉션들 항목이 서비스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컬렉션의 내용 정보들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목차정보들이 제공되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림 13> 후버연구소 OAC 콘텐츠로 연결되어있는 폴란드 임시정부(망명정부) 컬렉션에 관한 목차 내용정보 화면

4.3. 국내의 기관 사례 종합 분석 및 시사점

국내 임시정부 관련 기록물 소장 기관 및 해외기록관의 임시정부 관련 자료 분류체계와 온라인 서비스 사례들을 종합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 분류체계의 경우 ‘국가기록원’과 ‘국회기록보존소’는 기록물들을 기록물군, 기록물 하위군, 기록물 계열, 기록물 철, 기록물 건으로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세부 분류로는 기록물 생산기관에 따른 출처별, 기록물 종류인 유형별로, 기록물 외관에 따른 기록물 형태에 따라 구분 지어 분류해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기록보존소’의 세부 분류는 국내 수집 자료, 국외 수집 자료로 출처별 분류를 하고 있고, 기록물 형태별로 분류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의 경우 사료군, 사료 계열, 사료 철, 사료 건으로 계층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료의 출처에 따라 크게 국내, 국외, 주제별 사료로 분류하고 있다. 또 수집 자료에 따라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기준으로 유형별, 형태별로도 자료를 구분하고 있으며 유형별 자료의 경우 주제에 따라 구술자료, 민주화운동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은 컬렉션 단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는 크게 컬렉션, 철, 아이템 단위로 구성된다.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 역시 컬렉션 단위로 구분되며, 컬렉션(시리즈), 아이템(건)으로 자료들을 분류하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해당 기록에 관한 계층정보들의 확인이 가능하고, 각 기록물 단위에 속한 종속 계층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콘텐츠의 경우 분류기준에 따라 수집 출처별로 임시정부 기록물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은 기록물 검색 시 관련 하위자료 기록물 건수에 대해 단위별 정보 및 확인할 수 있게 상단에 도식화되어 있어 기록물 맥락 확인이 정보 가시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다.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은 다중분류 개념을 함께 접목하여 세부 분류에 따라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있게 서비스화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컬렉션에서 원하는 적합정보들을 확인해갈 수 있게 기능화 되어 있어 이용편의성이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경우 관련 주제의 컬렉션 정보들은 OAC와의 연결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컬렉션 별 아이тем 정보와 함께 컬렉션 가이드, 목차 정보 확인, 컬렉션 내에서의 정보 검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어 이용편의성이 높다. 또 각 기록정보에 관해서는 기술사항 뿐만 아니라 역사적 배경정보들을 담고

있는 역사노트 항목도 서비스화 되어 있어 기록의 맥락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임시정부(망명정부) 관련 기록물 소장 기관 별 분류체계, 온라인 서비스 비교

기관	분류체계	온라인 서비스
국가기록원	계층분류/출처별/유형별/형태별	기록물 단위별 종속 계층정보 확인 가능
국회기록보존소	계층분류/출처별 (국내 수집 자료, 국외 수집 자료)/형태별	임시의정원 아카이브 (수집 출처별로 기록물 확인 가능)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계층분류/사료의 출처별 (국내, 국외, 주제별 사료)/수집자료에 따른 지역별/유형별(구술자료, 민주화운동자료)/형태별	하위자료 기록물의 단위별 정보 확인 및 계층정보 도식화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	컬렉션 단위/컬렉션-컬-아이템 구성	다중분류 개념 접목 분류서비스, 세부정보 필터링 서비스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	컬렉션 단위/컬렉션(시리즈)-아이템(건) 구성	관련 주제 컬렉션 정보들의 OAC 연결서비스, 컬렉션 별 아이템 및 목차정보 서비스, 역사 배경정보들을 담고 있는 역사노트 서비스

기관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임시정부기념관의 경우 소장 자료의 특성상 역사 관련 자료들을 수집, 수증 받고 있으며, 관리 성격상 자료의 계층구조 및 수집경로 등이 국사편찬위원회와 유사하기 때문에 국사편찬위원회의 출처별 분류체계를 중점적으로 참고하여 기록물 정리 및 온라인 서비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자료의 수집 출처 및 지역 출처에 따른 ‘출처별 분류’, 기증기록물 및 임시정부 관련 자료들의 주제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주제별 분류’, 자료의 다양한 물리적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형태별 분류’의 기준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기준점에 따라 분류하는 다중분류체계의 적용은 기념관의 다양한 매체의 자료관리, 자료의 통합분류에 있어서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이 임시정부(망명정부)에 관한 다양한 매체유형 자료들을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관련 정보원들을 함께 연결하여 표출해주는 방식을 참고하여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즉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자료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정보검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 패킷 필터링 서비스, 자료 간 연계정보 서비스를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공개정보원들을 함께 링크하여 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기능과 컬렉션에 관한 안내가이드 정보 제공, 컬렉션 관련 목차 세부정보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도 컬렉션 정보에 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참고하고자 하였다.

5. 임시정부 기록 분류체계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방안

5.1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관에 적용가능한 분류체계 개발안 도출

지금까지 살펴본 기관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여러 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출처별, 형태별 분류체계의 도입이 가장 기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중에서도 기관의 수집기록물 성격, 방향성이 유사하고 자료의 수집방식 기준이 출처별 기준을 따르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 임시의정원 아카이브와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의 분류체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참고하고자 하였다.

분류대상은 임시정부기념관 기관의 전체 소장 자료인 유물, 기록물, 도서, 행정박물관 등이며, 다양한 매체들을 융합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라키비움 형식의 통합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해, 분류체계의 계층 구분을 기록이 아닌 총합적인 개념의 ‘자료’로 지칭하였다. 기본적으로 먼저 ‘출처별’ 계층구조는, 기념관의 소장자료 특징 및 현황과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구분하고 있는 분류기준들을 참고하고 확장시켜, 최종적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여러 방식으로 복합분류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료의 맥락정보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다중분류 개념을 분류체계에 함께 적용하고자 하였다. 세부 분류기준으로는 임시정부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형태별 분류와 함께 기관의 특성상 임시정부사에 관한 시대의 흐름별로 구분할 수 있는 ‘시대별 분류’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주제별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주제별 분류’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출처별 분류 체계의 경우, 먼저 자료 수집과 생산 방법에 따라 크게 기관수집, 기관생산으로 1차적으로 분류하였다. 기관수집 자료의 경우 기관이 자료수집 기준 및 방향에 따라 수집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말한다. 기관생산 자료의 경우 기관에서 부서별로 업무활동을 하면서 생산하게 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의미한다.

2차 분류로는, 기관수집 자료의 경우, 출처에 따라 크게 ‘국내’와 ‘국외’로 분류하여 각각을 컬렉션으로 구성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내 기관들 및 경매업체 구입, 개인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들을 하나로 묶는 것으로 하였다. ‘국내’ 컬렉션의 하위분류로는 수집자료의 직접적인 출처인 원소장처별로 분류를 하기로 하고, 각 기관, 기념사업회, 업체, 기타기관, 개인(매도자별, 기증자별)으로 계열을 구분하였다. 이의 하위계열은 각 계열에 포함된 기관인 우당기념관,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백범김구선생 기념사업회, 경매업체, 기타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개인’ 계열의 경우는 기증자별, 매도자별로 크게 구분하였다. 하위 계층단위인 자료철의 경우, 우선적으로 수집 자료의 형태별로 철로 처리를 한다. 이는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출처별 분류체계

방법	컬렉션	계열	하위계열	자료철
기관 수집	국내	기관	우당기념관	-독립운동, 임시정부 관련 수집자료(도서) -독립운동, 임시정부 관련 수집자료(기록물)
		기념사업회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독립운동, 임시정부 관련 수집자료(도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임시정부 관련 수집자료(도서)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독립운동, 임시정부사 수집자료(도서)
		업체	경매업체	-독립운동, 임시정부 관련 유물 -독립운동, 임시정부 관련 기록물(구입차수별)
		기타기관	기타기관	-추후 수집, 등록
	개인	매도자별	-독립운동, 임시정부 연구 수집자료(유물) -독립운동, 임시정부 연구 수집자료(도서) -독립운동, 임시정부 연구 수집자료(기록물)	
		기증자별	-권역별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만남을 통한 수집자료(사진, 문서 복사물, 도서, 구술채록 등) -기타자료 수집	
	국외		미국	-추후 수집, 분류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기타			

기관 생산	임시정부 기념관	기념관 활동기록	학술·연구	<실물 아카이브> -발간물(전시도록, 연구총서) -위원회 자료(구입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사업보고서(사업(용역)보고서 등) -행사 및 프로그램(포스터, 초대장 등) -행정박물(관인류, 상징류 등) <디지털 아카이브(홈페이지 등록자료)> -행사 및 홍보자료 (홍보이미지, 행사사진, 영상 등)
			체험·교육	
			자료	
			전시	
			홍보교류	
			운영	

다음으로, 출처별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다중분류체계를 구현하고자, 임시정부기념관의 다양한 자료들을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분류해 보고자 하였다. 전체 소장 자료를 물리적 특징, 즉 자료의 형식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할 수 있는 ‘형태별’ 분류체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024년 4월 현재 임시정부기념관 아카이브 페이지에서는 자료의 유형을 크게 ‘이미지, 영상, 음원, 도서, 기타’로 간단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를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임시정부기록물 소장 유관기관 사례들을 통해 살펴봤던 자료의 유형분류 항목들을 참고하고, 임시정부기념관 소장 자료들을 참고하여 좀 더 세분화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자료의 유형을 크게 ‘일반문서류, 단행본, 간행물, 서신류, 신문 및 스크랩류, 사진필름류, 녹음동영상류, 지도 및 도면류, 생활류, 군사류, 행정박물, 기타’로 분류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형태별 분류체계

연번	자료유형
1	일반문서류(문서, 복사물, 서신, 전단지, 회의록, 리플렛, 팜플렛, 초대장 등)
2	전적류(도서, 간행물 등)
3	사진필름류(사진, 필름)
4	녹음동영상류(영상, 구술채록 등)
5	신문 및 스크랩류
6	지도 및 도면류
7	군사류(군복, 무기 등)
8	생활류(가방, 여권, 신분증 등)
9	행정박물(관인, 현판 등 기념관 상징류)
10	기타

‘시대별’ 분류의 경우, 현재 임시정부기념관 아카이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대별 분류는 ‘조선, 개항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대한민국기, 연대미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임시정부 27년 시기를 정부 이동시기에 따라 분류하여 크게 ‘상해시기, 이동시기, 충청시기’로 나누어 적용한다면 시대적 의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활동했던 임시정부의 내용 및 해당 시기에 속한 자료들을 이해하는데 더 용이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안한 시대별 분류는 크게 ‘조선, 개항기, 대한제국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시기(1919-1932),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시기(1932-1940),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청시기(1940-1945), 광복이후, 대한민국, 연대미상’이며 이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시대별 분류체계

연번	시대 구분
1	조선
2	개항기
3	대한제국기
4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시기(1919-1932)
5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시기(1932-1940)
6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시기(1940-1945)
7	광복이후
8	대한민국
9	연대미상

‘주제별’ 분류의 경우, 자료의 주제에 따라 크게 ‘만세운동, 헌법제정, 행정활동, 외교활동, 재정활동, 군사활동, 의열투쟁, 의정원활동, 문화활동, 교육활동, 구호활동, 경찰활동, 특무활동, 해외 이민자 활동, 기타’ 등으로 현재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다. 이는 임시정부기관의 전시설계 및 목적, 방향성에 근거하여 자료 흐름에 따라 주제 구분된 부분이라 그대로 분류체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각 주제 분류 항목은 임시정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서 분류된 활동 내용과 소장 및 전시하고 있는 임시정부 자료로부터 분류할 수 있는 활동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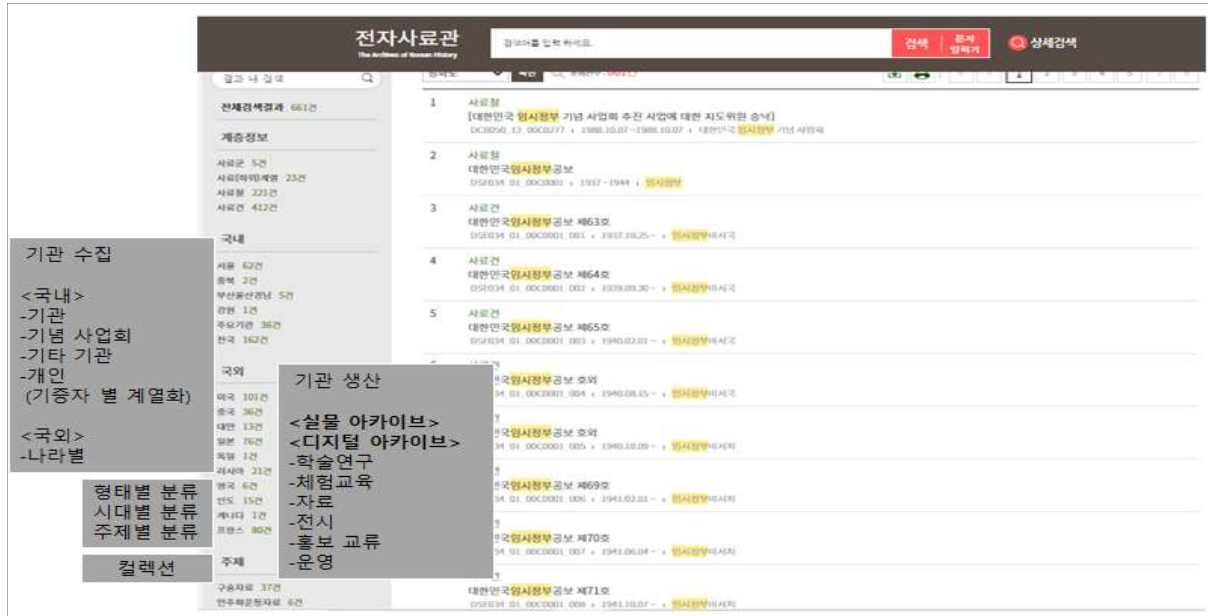
<표 11> 주제별 분류체계

연번	주제 구분
1	만세운동
2	헌법제정
3	행정활동
4	외교활동
5	재정활동
6	군사활동
7	의열투쟁
8	의정원활동
9	문화활동
10	교육활동
11	구호활동
12	경찰활동
13	특무활동
14	해외 이민자 활동
15	기타

5.2 서비스 방안

자료의 전체적인 온라인 서비스는 임시정부기념관과 수집 자료 및 자료 정리방향이 유사한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의 계층메뉴 및 다양한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며, 또한 해외사례들에서 살펴본 컬렉션, 분류체계 서비스도 함께 적용하고자 한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의 경우 출처별 분류체계를 전면메뉴화하여 자료들을 검색,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화면을 차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분류체계를 온라인에서 서비스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념관 자료 수집방법에 따라 크게 ‘기관수집’과 ‘기관생산’으로 출처별 상위메뉴를 구성한다. 출처별 분류체계에 의거해 기관수집은 크게 ‘국내’와 ‘국외’ 메뉴로 컬렉션화하고, 여기에서 자료분류를 세분화시켜 나간다. 더불어 각 계층의 서비스에 다중분류를 함께 적용하여 왼쪽

메뉴바에 ‘형태별, 주제별, 시대별 분류’에 따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든다. 그리고 해당 다중분류 기준 부분에서 차용해 볼 수 있는 자료의 형태별, 임시정부 관련 시대별, 주제별 핵심자료들을 통합하여 묶어 컬렉션 서비스할 수 있는 메뉴도 구성하여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온라인서비스 중 차용하고자 하는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검색화면에 해당 내용들을 간략히 도식화하여 표현하면 <그림 14>와 같다.



<그림 14>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 부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화면

또한, 각 계층단위별로 자료 건들에 들어가면 종속된 자료들과 함께 하위자료 건수와 내용들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조직적으로 시각화하여, 자료 건들의 전반적인 계층 맥락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안한다. 컬렉션 서비스의 경우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의 다양한 매체유형 자료들과 같이 컬렉션 서비스화하고, 관련 정보원들을 다중분류개념에 함께 적용시켜 세부 분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부분을 참고해서 적용한다. 다중분류 필터 서비스가 자료의 기본 분류체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인 면에서도 적용되어 도서, 기록물, 유물의 복합자료들을 다각적으로 분류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경우 컬렉션 제공서비스 중 공개정보원들을 함께 링크하여 정보활용 할 수 있게 서비스하는 기능과 컬렉션에 관한 안내가이드 정보, 컬렉션 관련 목차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접목하면 좋을 것이다.

6. 결론

이 논문에서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도서, 기록물, 행정박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통합분류할 수 있는 라키비움 형식의 기관 소장 자료에 관한 분류체계 개발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분류체계 개발 시 다중분류 개념을 함께 접목시킴으로써,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출처나 기능 측면의 특성뿐 아니라, 소장 자료들의 형태와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에도 초점을 맞추어, 라키비움 형식의 기관에서는 분류체계 개발에도 그 기관의 특징을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과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분류체계기준안에 대해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지에 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였다. 분류체계와 관련해서는 ‘출처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계층구조를 설정하고자 하였고, 이에서 나아가 다중분류의 개념을 함께 적용하여 ‘형태별 분류’, ‘시대별 분류’, ‘주제별 분류’로도 자료의 분류가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다.

제안한 분류체계기준안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먼저 출처별로 크게 국내 및 국외로 메뉴를 구성하고, 이 중 기관수집 자료의 경우에는 기본 분류체계 안에서 제시된 자료의 원소장처 및 개인 기증자별로, 수집 국가별로 분류 항목이 제시되도록 제안하였다. 기관 생산자료의 경우에는 업무별 활동 기록이 현재 구분되어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료의 철별로 구분할 수 있는 실물 아카이브와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 자료들을 구분하여 온라인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함께 제안한 다중분류체계인 ‘형태별, 시대별, 주제별’ 분류에 관한 내용들도 함께 적용되어 라키비움의 통합적인 분류 서비스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컬렉션 서비스 내용과 관련해서는 ‘컬렉션 가이드 정보 및 목차정보, 컬렉션 연관 정보원 제공’ 등을 통해 시리즈 및 아이템에 관한 맥락정보 및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자들이 한 화면에서 시각적으로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서비스가 구현될 것을 제안하였다.

임시정부기념관 자료를 토대로 설계한 라키비움 형식의 자료에 관한 분류체계 개발안이 기념관의 다양한 형태의 복합자료들을 융합적으로 분류하고 구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가 되기를 바란다. 기념관에서 라키비움 형식을 분류체계에 차용하여 활용한다는 개념은 각 자료의 조직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반적인 기록관의 라키비움에서의 자료 관리 측면과 의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료의 형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봤을 때, 서로 다른 형태의 물리적 자료들을 다중 분류체계의 세부 분류에 따라, 또 하나의 통합 분류체계 개발안에 매핑하여 분류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라키비움 형식의 기관 소장 자료 분류체계 개발은 라키비움 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당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부 기관의 사례만 분석하여 기념관의 현재 상황에 기반해 제안된 분류체계안이라, 객관적인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실제 기관에 적용 과정을 거치며 기관 내외부의 이용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분류체계 개발안과 온라인 서비스 방안이 앞으로 계속 제시될 라키비움을 지향하는 기관의 아카이브에 하나의 방안으로 참고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유관기관들에서도 다양한 자료들의 통합 분류체계가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공귀영, 이상용 (200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록물의 단체명 전거레코드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40, 181-212.
<https://doi.org/10.17258/jib.2008..40.181>
- 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 국가기록포털.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2023). 소장자료 현황 내부문서.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행년불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아카이브. 출처: <https://www.nmkpg.go.kr/archives/>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발행년불명].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출처: <https://www.nmkpg.go.kr/>
- 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출처: <http://archive.history.go.kr>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2022). 2022년 임시의정원 기록물 조사·수집 사업 최종보고서

-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발행년불명]. 국회기록보존소. 출처: <https://archives.nanet.go.kr/main.do>
- 김광재 (2018).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물의 일실에 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87, 43-69.
- 김유선, 이명규 (2018).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1), 155-175.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155>
- 김천호 (2022). 기록정보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주 4·3 기록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 김학명 (2016).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록관리의 제도와 실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 박도영, 오경목 (2020). 유네스코 소장 한국 관련 수집 기록물의 패킷 분류 체계: 1950~1979년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99-118.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2.099>
- 박성우, 정대근 (2017).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373-403. <https://doi.org/10.16981/kliiss.48.2.201706.373>
- 박옥남 (2019). 문화유산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1), 195-2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95>
- 배성중, 배삼열, 김용 (2014). 소규모대학교에서의 라키비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63-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63>
- 서채영, 이해영 (2024). 라키비움 웹 정보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4(1), 205-230.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205>
- 성효주, 이해영 (2017). 기록물의 검색 향상을 위한 패킷 개발에 관한 연구: 대통령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165-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165>
- 오정훈, 이응봉 (2014).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원자력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229-246. <https://doi.org/10.16881/jss.2014.04.25.2.229>
- 오정희, 정연경 (2018). 독립 운동 컬렉션 분류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공훈전자사료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99-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099>
- 유소연, 김지현 (2022). 국내 라키비움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205-23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3.205>
- 윤규빈, 김다운, 장효정 (2023). 대통령기록관 대통령선물 검색을 위한 패킷 분류체계 개발. *기록학연구*, 76, 119-157. <https://doi.org/10.20923/kjas.2023.76.119>
- 이미경 (2014). 라키비움 도입과 실현. *국회도서관*, 51(5), 14-23.
- 이재영, 정연경 (2020). 폐교 사립대학 기록물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 서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3), 39-54.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39>
- 이해영, 최영실, 안영숙, 강선옥, 이효원, 임지민, 강재희, 유병후, 이윤령, 정은봉, 허덕행 (2013). 대통령기록물 주제 분류체계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조현양, 김홍렬, 최재황, 박종도, 이정찬, 이용운 (2015). 도서관에서의 라키비움 실현을 위한 제도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457>
- 한국도서관협회 [발행년불명].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출처: https://www.kla.kr/kla/bbs/board.php?bo_table=reference07
- Imperial War Museums [n.d.]. Imperial War Museums. Available: <https://www.iwm.org.uk>
-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Library & Archives [n.d.]. Hoover Institution Library & Archives. Available:

<https://www.hoover.org/library-archive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Gong, Gui-Young & Lee, Sang-Yong (2008). A Study on the Modeling of Archival Authority Records for Corporate bodi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1945.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0, 181-212. <https://doi.org/10.17258/jib.2008..40.181>
- Bae, Sung-Jung, Bae, Sam-Yeol,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Larchiveum in a Small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4), 63-97.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4.063>
- Choi, Youngsil & Rieh, Hae-Young (2012). Functional Planning of Larchiveum that Integrates the Funct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57-477.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457>
-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No.10.
- Jo, Hyun-yang, Kim, Hong-ryul, Choi, Jae-hwang, Park, Jong-do, Lee, Jung-chan, & Lee, Yong-woon (2015). *Institutional Study for the Implementation of Larchiveum in Librari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Kim, Chun Ho (202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Online Service for Archival Information and Improvement Plan: Focusing on Jeju 4·3 Archiva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Joongbu University. Dept. of Archives management, Korea.
- Kim, Hakmyung (2016). *The System and Practice of Archive Management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chival Science, Korea.
- Kim, Kwang Jae (2018). Loss of Records from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87, 43-69.
- Kim, You-sun & Lee, Myounggyu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the Records of the Association for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Hampyeong Massacre Victim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1), 155-175.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1.155>
- Korean Library Association [n.d.]. Diction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erms. Available: https://www.kla.kr/kl_a/bbs/board.php?bo_table=reference07
- Lee, Jae-Young & Chung, Yeon-Kyoung (2020).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for the Records in Closed Private Universities : Focused on "Seonam Univers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0(3), 39-54.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3.039>
- Lee, Mikyung (2014). Deployment and realization of larchiveum. *National Assembly Library*, 51(5), 14-23.
- National Archives of Korea [n.d.]. National Archives of Korea. Available: <https://www.archives.go.kr/next/viewMainNew.do>
-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Archives (2022). 2022 Provisional National Assembly records investigation and collection Project final report.
- National Assembly Library National Assembly Archives [n.d.]. National Assembly Archives. Available: <https://archive>

s.nanet.go.kr/main.do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 Archives of Korean History. Available: <http://archive.history.go.kr>
-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2023). Internal document on current status of collection materials.
-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n.d.].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rchive. Available: <https://www.nmkpg.go.kr/archives/>
-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n.d.]. National Memorial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vailable: <https://www.nmkpg.go.kr/>
- Oh, Jeong-Hoon & Lee, Eung-Bong (201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archiveum of Specialized Library: Focused on Atomic Larchiveum. *Journal of Social Science*, 25(2), 229–246. <https://doi.org/10.16881/jss.2014.04.25.2.229>
- Oh, Jung Hee & Chung, Yeon Kyoung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Movement Collection Classification System: Focus on the Gonghun Digital Arch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99–1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4.099>
- Park, Do Young & OH, Kyung-Mook (2020). A Study on the Faceted Classification Scheme for the Korea-related Records (1950~1979) Collected from UNESCO Archiv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99–118. <https://doi.org/10.14699/kbiblia.2020.31.2.099>
- Park, Oknam (2019).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Cultural Heritage Cont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9(1), 195–224.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1.195>
- Park, Seong Woo & Jeong, Dae Keun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assification System for Archives of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373–403.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373>
- Rieh, Hae-young, Choi, Youngsil, Ahn, Youngsook, Kang, Seonok, Lee, Hyowon, Lim, Jimin, Kang, Saehee, Yoo, Byunghoo, Lee, Yunryeong, Jeong, Eunbong, & Heo, Deokhaeng (2013). Final report on the advancement of the presidential subject classification system research service. Seongnam: National Archives of Korea, Presidential Archives.
- Seo, Chae-young & Rieh, Hae-young (2024). Development of Evaluation Indicators and Evaluation for Larchiveum's Web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4(1), 205–230. <https://doi.org/10.14404/JKSARM.2024.24.1.205>
- Seong, Hyoju & Rieh, Hae-young (2017).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Facets for Improvement in Searching Records: Focusing on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7(2), 165–188.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165>
- Yoon, Gyubin, Kim, Daeun, & Jang, Hyo Jeong (2023). Development of a Facet Classification System for Presidential Gift Search in Presidential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76, 119–157. <https://doi.org/10.20923/kjas.2023.76.119>
- Yu, Soyeon & Kim, Ji Hyun (2022). A Study on Plans for Facilitating the Management of Larchiveu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3), 205–237. <https://doi.org/10.14699/kbiblia.2022.33.3.205>